

## 아동의 인성특성, 부모에 대한 애착 및 부부갈등과 또래괴롭힘

Correlates of Peer Victimization :  
Personality Traits, Parent Attachment, and Marital Conflict

박 보 경\*  
Park, Bo Kyung  
도 현 심\*\*  
Doh, Hyun Sim

### Abstract

In this study of the correlates of peer victimization, 584 4<sup>th</sup> grade children in Seoul answered questionnaires regarding their personality traits, parent attachment and the marital conflict of their parents. Subjects and their peers also reported on peer aggression and victimization by peers. Data were analyzed by partial correlation, controlling for gender. Children's sociability/activity related positively to peer-rated peer aggression and negatively to self- and peer-rated victimization by peers. Children's shyness/emotionality related positively to self-reported peer aggression and to self- and peer-rated victimization by peers. Parent attachment related negatively to self-reported peer aggression and victimization by peers and positively to peer-rated peer aggression. Marital conflict related positively to self-reported peer aggression and to self- and peer-rated victimization by peers. Marital conflict was the most influential on peer aggression and children's personality traits were on victimization by peers.

**Key words** : 또래괴롭힘(peer victimization), 또래공격성(peer aggression), 또래에 의한 괴롭힘(victimization by peers)

\* 접수 2002년 6월 30일, 채택 2002년 7월 23일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 E-mail : pbk0917@hanmail.net

\*\*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인간발달학과 부교수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90년대 중반부터 우리 나라에서는 집단따돌림, 학교폭력, 왕따 등의 이름으로 또래괴롭힘 문제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또래괴롭힘은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또래에 의해 행해지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부정적 행동을 의미하며(Olweus, 1991), 그 안에는 반드시 힘의 불균형이 존재해야 한다(Olweus, 1993). 이러한 차원에서 또래괴롭힘은 가해아와 피해아의 양 측면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가해아의 측면은 또래공격성(peer aggression)으로, 피해아의 측면은 또래에 의한 괴롭힘(victimization by peers)으로 명명된다. 여러 연구들을 통해 이미 또래괴롭힘이 아동의 적응적인 어려움을 야기한다는 결과들이 밝혀졌기에 또래괴롭힘이라는 위협에 처하게 할 수 있는 관련요인을 살펴보는 것은 더욱 중요할 것이다. 이에 관심을 둔 연구자들은 학급과 같은 또래집단 맥락에서 아동이 보이는 행동과 같은 근접(proximal) 요인과 또래괴롭힘과 관련된 행동패턴의 기초가 되는 가정환경과 같은 먼(distal) 요인으로 구분하여 그 관련요인을 확인하고자 시도하였다.

근접 요인 중 아동의 인성특성은 또래관계에서 아동이 보이는 행동의 기초가 되는데, 실제로 충동적이고 일반적 활동수준과 정서성이 높을수록 아동은 또래에게 공격적이었다(박미연, 2000; Olweus, 1980; Pellegrini, Bartini, & Brooks, 1999). 뿐만 아니라 공격성의 하위 유형을 구분한 연구에서도 분노를 유도하거나 공격적인 상황에서 자신의 기분변화에 따라 정서를 조절하지 못하는 남아는 관계적 공격성이

높게 나타났다(박혜경, 2002). 또한, 만성적으로 또래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아동은 설득이나 사회적 대화와 같은 주장적 행동을 거의 보이지 않은 반면 또래에게 복종하는 것과 같은 비주장적 행동을 많이 보였다. 이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평행놀이와 같은 수동적인 놀이를 하며 보내는 등 사회적으로 유능하지도 않았다(Schwartz, Dodge, & Coie, 1993). 이처럼, 서구 문화에서 밝혀진 아동의 사회적 행동과 또래에 의한 괴롭힘 간의 관계는 중국 아동의 또래집단에서도 유사하게 발견되었으며(Schwartz, Chang, & Farver, 2001), 국내의 경우에도 이와 일치하게 또래에 의한 괴롭힘은 아동의 수줍음과 정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나타난 반면 사회성과는 부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나타났다(도현심, 1998).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통해 아동의 충동성, 활동성, 정서성이 또래에 대한 공격성과 관련되며, 복종적이고 비주장적인 행동과 사회성 부족이 또래에 의한 괴롭힘과 관련됨을 알 수 있다. 국내의 경우 아직 이와 관련된 연구가 드문 실정이기에, 본 연구는 또래관계 맥락에서의 행동의 기초가 될 것으로 생각되는 아동의 인성특성이 또래공격성 및 또래에 의한 괴롭힘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 요인 중 연구자들에 의해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것은 가족 맥락이다. 이 중 부모는 아동의 가장 가까운 환경이기에 아동의 부모에 대한 애착을 비롯한 부모-자녀관계를 중심으로 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부모에 대한 애착과 또래괴롭힘 간의 관계를 주제로 한 연구들은 대부분 부모에 대한 불안정 애착에 초점을 두었다. 즉, 또래에게 공격적이거나 또래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아동은 양육자와 불안정 애착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나 좀 더 나아가든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모두 일치하게 보고되었으며, 특히 불안정-회피 애착은 또래공격성과 불안정-저항 애착은 또래에 의한 괴롭힘과 보다 밀접하게 관련되었다(Finnegan, Hodges, & Perry, 1996; Troy & Sroufe, 1987). 또한 중학교 2학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국내 연구에서도 아버지나 어머니에 대한 애착은 자기보고에 의한 또래에 의한 괴롭힘과 부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나타났다(도현심, 2000; 신재은, 1999).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통해 부모에 대한 불안정 애착이 또래괴롭힘과 관련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나, 국내의 경우 부모에 대한 애착을 또래 공격성 및 또래에 의한 괴롭힘과 동시에 관련시켜 살펴본 연구는 발견하기가 어렵다.

가족 맥락 중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연구들이 증가하면서, 아동의 또래집단에서의 행동과 관련될 것으로 여겨지는 가족 상호작용의 다른 측면을 점차 탐색하기 시작하였다. 이 중 특히 부부갈등에 새롭게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관심은 아동의 공격성 발달을 주제로 한 연구들에 의해 주로 보고되었다. 즉, 공격적인 성인의 역할모델에 노출되는 것이 아동의 공격성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며(Bandura, 1973; Dodge, 1991), 그 중 특히 가족 내에서 부모의 공격적인 역할모델에 노출되는 경험, 즉 부부간 갈등이나 부부간 폭력이 아동의 공격성을 발달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Emery, Fincham, & Joyce, 1987; Emery & O'Leary, 1982; Jouriles, Murphy, & O'Leary, 1989). 이를 주제로 한 국내 연구인 노치영(1988)은 부모의 폭력을 관찰하는 것이 부모로부터 폭력을

경험하는 것보다 아동의 공격성에 더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Bandura가 사회학습이론에서 주장한 대리학습기제가 아동의 공격성 발달에 중요함을 입증하는 것으로서 아동의 공격성을 예측하는데 부모의 폭력을 관찰하는 것이 매우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시사한다. 또래에 대한 공격성을 직접적 및 관계적 하위 유형으로 구분한 최근의 연구에서도 대체로 부부갈등을 높게 지각한 아동은 직접적 및 관계적 공격성이 높았다(김민정, 2001; Hart, Nelson, Robinson, Olsen, & McNeilly-Choque, 1998).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통해 부부갈등에 자주 노출될수록 아동이 또래에게 더 공격적임을 알 수 있다. 반면, 부부갈등과 또래에 의한 괴롭힘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은 발견하기가 상대적으로 쉽지 않다. 몇몇 안되는 연구들 가운데 임경원(1997)은 가족의 분위기가 또래에 의한 괴롭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였다. 즉, 아동이 가족분위기가 화목하다고 지각할수록 또래에 의한 괴롭힘은 높게 나타났다(임경원, 1997). 그러나, 이 연구에서 가족의 분위기는 부부관계 외에도 여러 다른 요인들이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부부갈등과 또래에 의한 괴롭힘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부갈등과 또래에 의한 괴롭힘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탐색해보고자 한다.

한편, 또래괴롭힘에 대한 최근의 연구들은 점차 그 하위 유형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김민정, 2001; Crick & Bigbee, 1998; Crick, Casas, & Ku, 1999; Crick & Grotpeter, 1995; Crick & Werner, 1998; Grotpeter & Crick, 1996). 다시 말해 과거의 국내외 연구들은 주로 남아에게만 초점을 맞추어 남아에게 좀 더

흔히 나타나는 직접적 유형에만 관심을 두었으나, 최근에는 좀 더 세부적으로 그 유형을 구분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또래괴롭힘을 보다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Crick과 동료들의 연구에 기초하여 직접적(overt) 및 관계적(relational) 유형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직접적 유형은 자신의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때리겠다고 위협하는 것과 같이 신체적인 해를 가하거나 신체적인 해를 가하겠다고 위협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는 행동을, 관계적 유형은 집단에서 의도적으로 제외시켜 또래에게 보복하는 것과 같이 또래관계나 우정에 해로운 조작을 가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는 행동을 의미한다.

또한, 아동의 사회적 행동을 주제로 한 연구들은 보고자에 따른 지각의 차이를 알아보거나 조사도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동일한 행동을 여러 평가자에 의해 측정하는 경향이 있다. 아동 자신은 사회적 바람직성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되지만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행동이므로 좀 더 정확하게 답할 수 있으며, 또래는 아동 자신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다 객관성을 가지고 아동의 행동을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또래공격성과 또래에 의한 괴롭힘을 자기보고와 또래보고에 의해 측정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최

근 들어 아동의 사회적 행동에 대한 연구들이 성차를 강조하는 점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연구문제의 분석시 성을 통제하고자 한다.

요약하면, 본 연구는 또래관계가 아동의 삶 속에서 더욱 중요해지는 시기이며 또래괴롭힘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나타나는 시기인 아동중기 아동을 대상으로 또래괴롭힘의 관련변인을 알아보고자, 아동의 인성특성, 부모에 대한 애착 및 부부갈등이 또래괴롭힘의 가해아 측면인 또래공격성과 피해아 측면인 또래에 의한 괴롭힘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아동의 인성특성, 부모에 대한 애착 및 부부갈등이 또래괴롭힘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도 살펴보고자 한다.

## 2. 연구문제

- 1) 아동의 인성특성은 또래괴롭힘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 2) 부모에 대한 애착은 또래괴롭힘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 3) 부부갈등은 또래괴롭힘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 4) 아동의 인성특성, 부모에 대한 애착 및 부부갈등이 또래괴롭힘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의 세 개 구에 위치한 3개의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중인 548명의 아동(남아 : 252명, 여아 : 296명)이다. 본 연구

의 대상을 아동중기에 속하는 초등학교 4학년 아동으로 선정한 것은 아동의 삶 속에서 또래관계가 더욱 중요해지는 시기일 뿐만 아니라 또래공격성과 또래에 의한 괴롭힘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나타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 2. 조사도구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또래공격성 척도, 또래에 의한 괴롭힘 척도, 아동의 인성특성 척도, 부모에 대한 애착 척도, 부부갈등 척도로 구성된다. 또래공격성과 또래에 의한 괴롭힘은 아동 자신과 또래에 의해, 아동의 인성특성, 부모에 대한 애착 및 부부갈등은 아동 자신에 의해 평가되었다.

### 1) 또래공격성 척도

또래공격성 척도는 Crick과 Werner(1998)의 척도 가운데 직접적 공격성(5문항)과 관계적 공격성(5문항)에 관한 문항을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자기보고용은 Likert식 4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Cronbach's  $\alpha$ 는 직접적 또래공격성이 .84, 관계적 또래공격성이 .78이었다. 또래보고용은 질문지의 첫번째 행에 동성의 급우들의 이름을 제시하고, 첫번째 열에 또래공격성을 측정하는 문항들을 제시한다. 아동은 우선 첫번째 행에서 자기 이름에 ×표를 한 후, 각 문항의 내용에 해당된다고 생각되는 동성의 급우들의 이름 아래에 3명까지만 √표를 한다. 또래보고에 의한 아동의 또래공격성 점수는 각 문항에 대해 동성의 급우들이 지명한 수를 백분율로 계산한 후, 각 문항의 백분율을 합하여 산출한다. 즉, 직접적 및 관계적 또래공격성 점수는 각각 0-500점에 이르게 된다.

### 2) 또래에 의한 괴롭힘 척도

또래에 의한 괴롭힘 척도는 Crick과 Bigbee (1998)의 Social Experience Questionnaire-Peer Report(SEQ-P) 가운데 직접적 또래에 의한 괴롭힘(4문항)과 관계적 또래에 의한 괴롭힘(5문항)에 관한 문항을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자기

보고용은 Likert식 4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Cronbach's  $\alpha$ 는 직접적 또래에 의한 괴롭힘이 .78, 관계적 또래에 의한 괴롭힘이 .90이었다. 또래보고용은 앞서 언급한 또래공격성과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되며, 직접적 또래에 의한 괴롭힘 점수는 0-400점, 관계적 또래에 의한 괴롭힘 점수는 0-500점에 이르게 된다.

### 3) 아동의 인성특성 척도

아동의 인성특성 척도는 Buss와 Plomin (1984)의 척도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수줍음, 정서성, 사회성 및 활동성의 4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며, 총 20개 문항을 포함한다. 각 문항은 Likert식 4점 척도로 이루어졌는데, 척도의 각 요인별 신뢰도를 산출한 결과 .19 - .65 수준으로 매우 낮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이에 varimax 회전방식을 통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최종적으로 두 가지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두 요인의 요인부하량이 서로 유사한 한 문항을 제외하였다. 10문항으로 구성된 제 1요인은 수줍음/정서성 요인으로 수줍음이 많으며 부정적인 정서적 반응을 자주 보이는 특성을 의미하며, Cronbach's  $\alpha$ 는 .73이었다. 9문항으로 구성된 제 2요인은 사회성/활동성 요인으로 사교적이고 활동적인 특성을 의미하며, 9문항 중 전체 문항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한 문항을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Cronbach's  $\alpha$ 는 .71이었다.

### 4) 부모에 대한 애착 척도

부모에 대한 애착 척도는 Armsden과 동료들 (1991)의 Revised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IPPA-R) 중 부모에 대한 애착 부분을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원래 5점 척도로 측정하나 본 연구에서는 Likert식 4점 척도로 측

정하였으며, 25문항 중 전체 문항의 신뢰도를 낮추는 3문항을 제외하여 22문항을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하였다. Cronbach's  $\alpha$ 는 아버지에 대한 애착이 .87,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89이었다.

#### 5) 부부갈등 척도

부부갈등 척도는 Straus(1979)가 개발한 Conflict Tactics Scales(CTS) 가운데 언어적 공격(Verbal Aggression)과 신체적 공격(Violence)에 관한 문항을 변안하여 사용하였다. 14문항 가운데, 현재 우리 나라의 일상적인 부부관계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칼이나 총으로 위협했다'와 '칼이나 총을 사용했다'라는 2문항을 제외하여 총 12문항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CTS는 지난 일년 동안 그러한 행동이 얼마나 자주 일어났는지에 대해 7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이루어졌으나,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응답시 어려움을 감안하여 Likert식 4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Cronbach's  $\alpha$ 는 .93이었다.

### 3. 조사절차 및 자료분석

본 조사를 실시하기 전, 서울 시내의 한 초등

학교 4학년 2개 학급에서 63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초등학교 4학년 아동에게 적합하도록 질문지의 표현과 분량을 수정하였다. 본 조사는 2001년 12월초부터 중순까지 서울 시내 세 개 구에 위치한 3개 초등학교 18학급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훈련된 8명의 조사원들이 각 학급에 들어가 아동에게 직접 질문지를 배부·실시한 후 그 자리에서 바로 회수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회수된 질문지 중 총 548부를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분석을 위해 SPSS PC +10 program을 사용하였다. 우선 조사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Cronbach's  $\alpha$ 를 산출하고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다음으로 아동의 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아동의 인성특성, 부모에 대한 애착 및 부부갈등과 또래 괴롭힘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부분상관관계(Partial Correlation) 분석을 실시하였고, 마지막으로 아동의 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또래 괴롭힘에 대한 아동의 인성특성, 부모에 대한 애착 및 부부갈등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Ⅲ. 연구결과

### 1. 아동의 인성특성과 또래괴롭힘 간의 관계

아동의 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아동의 인성특성과 또래공격성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사회성/활동성은 직접적 및 관계적 또래공격성과 정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나타났으며, 이러한 관계는 또래보고에 의해 측정된 또래공격성의

경우에만 나타났다. 즉, 아동이 사교적이고 활동적일수록 또래들은 그 아동이 또래에게 직접적으로나 관계적으로 보다 더 공격적이라고 보고하였다. 수줍음/정서성 또한 직접적 및 관계적 또래공격성과 정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였으며, 이러한 관계는 자기보고에 의해 측정된 또래공격성의 경우에만 발견되었다. 즉, 수줍음

이 많고 부정적인 정서적 반응을 자주 보일수록 아동은 자신이 또래에게 직접적으로나 관계적으로 보다 더 공격적이라고 보고하였다.

아동의 성을 통제된 상태에서 아동의 인성특성과 또래에 의한 괴롭힘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사회성/활동성은 자기보고와 또래보고에 의한 직접적 및 관계적 또래에 의한 괴롭힘과 모두 부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나타났다. 즉, 아동 자신과 또래 모두 아동이 사교적이고 활동적일수록 또래로부터 직접적으로나 관계적으로 괴롭힘을 당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반대로, 수줍음/정서성은 자기보고와 또래보고에 의한 직접적 및 관계적 또래에 의한 괴롭힘과 모두 정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나타났다. 즉, 아동이 수줍음이 많고 부정적인 정서적 반응을 자주 보일수록 또래로부터 직접적으로나 관계적으로 괴롭힘을 보다 더 당한다고 아동 자신 뿐만 아니라 또래에 의해 보고되었다(<표 1>).

<표 1> 아동의 인성특성과 또래괴롭힘 간의 상관관계(자기보고/또래보고)

아동의 인성특성	또래공격성		또래에 의한 괴롭힘	
	직접적	관계적	직접적	관계적
사회성/활동성	-.02/	-.06/	-.22***/	-.17***/
	.15**	.12**	-.21***	-.15**
수줍음/정서성	.19***/	.37***/	.43***/	.43***/
	-.04	.01	.17***	.16***

\*\* $p < .01$ , \*\*\* $p < .001$

## 2. 부모에 대한 애착과 또래괴롭힘 간의 관계

아동의 성을 통제된 상태에서 부모에 대한 애착과 또래공격성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애착은 자기보고에 의한 직접적 및 관계적 또래공격성과 부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나타난 반면, 또래보고에 의한 직접적 및 관계적 또래공격성과는 정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나타났다. 즉, 아버지나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높을수록 아동은 자신이 또래에게 직접적으로나 관계적으로 공격적이지 않다고 보고한 반면, 또래들은 그 아동이 또래에게 직접적으로나 관계적으로 공격적이라고 보고하였다.

아동의 성을 통제된 상태에서 부모에 대한 애착과 또래에 의한 괴롭힘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애착은 직접적 및 관계적 또래에 의한 괴롭힘과 부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나타났으며, 이러한 관계는 주로 자기보고에 의해 측정된 또래에 의한 괴롭힘의 경우에만 발견되었다. 즉, 아버지나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높을수록 아동은 자신이 또래로부터 직접적으로나 관계적으로 괴롭힘을 당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또래보고의 경우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직접적 또래에 의한 괴롭힘만이 부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표 2>).

<표 2> 부모에 대한 애착과 또래괴롭힘 간의 상관관계(자기보고/또래보고)

부모에 대한 애착	또래공격성		또래에 의한 괴롭힘	
	직접적	관계적	직접적	관계적
아버지에 대한 애착	-.17***/	-.17***/	-.17***/	-.19***/
	.09*	.09*	-.04	.00
어머니에 대한 애착	-.17***/	-.23***/	-.22***/	-.23***/
	.10*	.12**	-.10*	-.03

\* $p < .05$ , \*\* $p < .01$ , \*\*\* $p < .001$

## 3. 부부갈등과 또래괴롭힘 간의 관계

아동의 성을 통제된 상태에서 부부갈등과 또

래공격성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부부갈등은 직접적 및 관계적 또래공격성과 정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나타났으며, 이러한 관계는 자기보고에 의해 측정된 또래공격성의 경우에만 발견되었다. 즉, 아동이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공격적이라고 지각할수록 아동은 자신이 또래에게 직접적으로나 관계적으로 보다 더 공격적이라고 보고하였다.

아동의 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부부갈등과 또래에 의한 괴롭힘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부부갈등은 자기보고와 또래보고에 의한 직접적 및 관계적 또래에 의한 괴롭힘과 모두 정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나타났다. 즉, 아동이 아버

지가 어머니에게 공격적이라고 지각할수록 또래로부터 직접적으로나 관계적으로 괴롭힘을 보다 더 당한다고 아동 자신 뿐만 아니라 또래들은 보고하였다(<표 3>).

#### 4. 또래괴롭힘에 대한 아동의 인성특성, 부모에 대한 애착 및 부부갈등의 상대적 영향력

아동의 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아동의 인성특성, 부모에 대한 애착 및 부부갈등이 또래괴롭힘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아동의 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직접적 또래공격성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자기보고의 경우 부부갈등이었으며( $\beta=.37, p<.001$ ), 또래보고의 경우 아동의 사회성/활동성이었다( $\beta=.11, p<.05$ ). 또한 자기보고와 또래보고의 경우 모두 아동의 성은 직접적 또래공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인들이 자기보고 및 또래보고에 의한 직접적 또래공격성을 설명하는 정도는 각각 21%

<표 3> 부부갈등과 또래괴롭힘 간의 상관관계(자기보고/또래보고)

부부갈등	또래공격성		또래에 의한 괴롭힘	
	직접적	관계적	직접적	관계적
부부갈등	.41***/ .02	.44***/ .07	.35***/ .15**	.48***/ .16***

\*\* $p<.01$ , \*\*\* $p<.001$

<표 4> 또래공격성에 대한 아동의 인성특성, 부모에 대한 애착 및 부부갈등의 상대적 영향력( $\beta$ )

또래공격성	직접적 또래공격성				관계적 또래공격성			
	자기보고		또래보고		자기보고		또래보고	
	1단계	2단계	1단계	2단계	1단계	2단계	1단계	2단계
<b>아동의 성</b>	.18***	.18***	.15**	.17***	.01	.02	.09	.10*
<b>아동의 인성특성</b>								
사회성/활동성		.07		.11*		.05		.09
수줍음/정서성		.07		-.02		.25***		.02
<b>부모에 대한 애착</b>								
아버지에 대한 애착		-.03		.03		.02		.05
어머니에 대한 애착		-.08		.06		-.12**		.11*
<b>부부갈등</b>		.37***		.05		.36***		.10*
R <sup>2</sup>	.03	.21	.02	.05	.00	.28	.01	.04
F	17.06***	22.44***	12.06**	4.46***	.04	32.57***	3.71	3.73**

\* $p<.05$ , \*\* $p<.01$ , \*\*\* $p<.001$



와 5%이었다.

아동의 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관계적 또래공격성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자기보고의 경우 아동의 수줍음/정서성과 어머니에 대한 애착, 부부갈등이었으며, 이 중 부부갈등이 가장 커다란 영향력을 나타내었다( $\beta=.36, p<.001$ ). 또래보고의 경우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부부갈등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 중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조금 더 커다란 영향력을 나타내었다( $\beta=.11, p<.05$ ). 또한 또래보고의 경우 아동의 성이 관계적 또래공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인들이 자기보고 및 또래보고에 의한 관계적 또래공격성을 설명하는 정도는 각각 28%와 4%이었다(<표 4>).

아동의 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직접적 또래에 의한 괴롭힘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자기보고와 또래보고의 경우 모두 아동의 사회성/활동성 및 수줍음/정서성, 부부갈등이었으며, 이 중 자기보고는 아동의 수줍음/정서성이

( $\beta=.32, p<.001$ ), 또래보고는 아동의 사회성/활동성이 가장 커다란 영향력을 나타내었다( $\beta=-.20, p<.001$ ). 또한 자기보고와 또래보고의 경우 모두 아동의 성은 직접적 또래에 의한 괴롭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인들이 자기보고 및 또래보고에 의한 직접적 또래에 의한 괴롭힘을 설명하는 정도는 각각 27%와 9%이었다.

아동의 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관계적 또래에 의한 괴롭힘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자기보고의 경우 아동의 수줍음/정서성과 부부갈등이었으며, 이 중 부부갈등이 가장 커다란 영향력을 나타내었다( $\beta=.37, p<.001$ ). 또래보고의 경우 아동의 사회성/활동성 및 수줍음/정서성과 부부갈등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 중 아동의 사회성/활동성이 가장 커다란 영향력을 나타내었다( $\beta=-.15, p<.01$ ). 이러한 변인들이 자기보고 및 또래보고에 의한 관계적 또래에 의한 괴롭힘을 설명하는 정도는 각각 33%와 6%이었다(<표 5>).

<표 5> 또래에 의한 괴롭힘에 대한 아동의 인성특성, 부모에 대한 애착 및 부부갈등의 상대적 영향력( $\beta$ )

또래에 의한 괴롭힘	직접적 또래에 의한 괴롭힘				관계적 또래에 의한 괴롭힘			
	자기보고		또래보고		자기보고		또래보고	
	1단계	2단계	1단계	2단계	1단계	2단계	1단계	2단계
<b>아동의 성</b>	.11*	.12**	.14**	.13**	.06	.06	.07	.07
<b>아동의 인성특성</b>								
사회성/활동성		-.13**		-.20***		-.07		-.15**
수줍음/정서성		.32***		.10*		.29***		.11*
<b>부모에 대한 애착</b>								
아버지에 대한 애착		.02		.08		.03		.09
어머니에 대한 애착		-.07		-.03		-.08		.04
<b>부부갈등</b>		.23***		.10*		.37***		.13**
R <sup>2</sup>	.01	.27	.02	.09	.00	.33	.01	.06
F	6.23*	30.57***	9.90**	8.35***	1.53	41.18***	2.86	5.63***

\* $p<.05$ , \*\* $p<.01$ , \*\*\* $p<.001$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 아동 548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법을 이용하여 성을 통제된 상태에서 아동의 인성특성, 부모에 대한 애착 및 부부갈등이 또래공격성 및 또래에 의한 괴롭힘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인성특성과 또래공격성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사회성/활동성은 직접적 및 관계적 또래공격성과 정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나타났으며, 이러한 관계는 또래보고에 의해 측정된 또래공격성의 경우에만 나타났다. 이처럼, 아동이 사교적이고 활동적일수록 또래들이 그 아동을 또래에게 공격적이라고 보고한 결과는 남아의 초기 기질과 또래보고에 의해 측정된 또래와 교사에 대한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충동적이고 활동적인 기질을 지닌 아동이 공격적이라고 한 Olweus(1980)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수줍음/정서성 역시 직접적 및 관계적 또래공격성과 정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였으며, 이러한 관계는 자기보고에 의해 측정된 또래공격성의 경우에만 발견되었다. 이와 같이 수줍음이 많고 부정적인 정서적 반응을 자주 보일수록 아동 스스로 자신이 또래에게 공격적이라고 지각한 결과는 공격적인 아동과 청소년이 매우 감정적이라는 Coie와 Dodge(1998)의 결과 뿐만 아니라 역기능적으로 정서조절 하는 남아가 자기보고에 의한 관계적 공격성을 더 많이 나타낸다는 국내 연구인 박혜경(2002)의 결과와도 유사한 맥락이다. Pellegrini와 동료들(1999)이 언급하였듯이, 신체적 활동성과 높은 정서성은 자기통제의 부족과 관련되기에 그 결과 공격성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흥미로운 점은 아동의 인성특성과 또래공격성 간의 관계가 보고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즉, 또래는 사교적이고 활동적인 아동을 공격적이라고 지각한 반면, 아동 자신은 스스로 수줍음이 많고 부정적인 정서적 반응을 자주 보인다고 지각할 경우에 자신을 공격적이라고 지각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성/활동성은 또래의 눈에 잘 띄는 행동이고 이러한 특성을 지닌 아동은 또래와 접촉이 많고 설새없이 활동적으로 움직이기 쉬우므로 또래가 보기에 공격적으로 보일 수도 있음을 반영한다. 반면,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수줍음/정서성은 또래의 눈에 잘 띄지 않는 행동이므로 또래는 미처 인식하지 못하지만 감정조절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분이 쉽게 상하고 동시에 수줍음을 타는 아동 자신은 자신의 내부적 공격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인 것에 기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아동의 인성특성과 또래에 의한 괴롭힘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사회성/활동성은 자기보고와 또래보고에 의한 직접적 및 관계적 또래에 의한 괴롭힘과 모두 부정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나타났다. 즉, 아동이 사교적이고 활동적일수록 또래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지 않는다고 아동 자신과 또래들은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또래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아동은 주장적 행동을 거의 보이지 않았으며 사회적으로 유능하지도 않았다고 한 기존의 연구결과들(도현심, 1998; Schwartz et al., 1993)과 일치한다. 수줍음/정서성은 자기보고와 또래보고에 의한 직접적 및 관계적 또래에 의한 괴롭힘과 모두 정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나타났다. 즉, 아동 자신과 또래 모두 아동이 수줍음이 많고

부정적인 정서적 반응을 자주 보일수록 또래로부터 괴롭힘을 보다 더 당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수줍음이 많을수록 또래로부터 괴롭힘을 많이 당한다는 결과(도현심, 1998)나 정서성이 높을수록 또래로부터 괴롭힘을 많이 당한다는 결과(Pellegrini et al., 1999)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사교적이고 활동적인 아동의 경우 지지적인 친구를 갖거나 또래지위가 높을 가능성이 많기에 이러한 요인이 또래에 의한 괴롭힘에 대해 일종의 보호적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반면에, 수줍음이 많고 위축적인 아동은 자신을 적절하게 주장하지 못하여 또래에게 공격하기 쉬운 대상으로 보일 수 있다. 또한, 잘 울고 감정적으로 잘 흥분하는 것과 같이 부정적인 정서적 반응을 자주 보이는 특성은 낮은 사회적 기술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해 아동은 또래관계에서 소외를 당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둘째, 부모에 대한 애착과 또래공격성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아버지나 어머니에 대한 애착은 자기보고에 의한 직접적 및 관계적 또래공격성과 부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나타났다. 아버지나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낮을수록 아동 자신이 또래에게 보다 더 공격적이라고 보고한 본 연구의 결과는 불안정 애착이 또래공격성과 관련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들과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된다(Finnegan et al., 1996; Troy & Sroufe, 1987). 반면, 또래보고의 경우 아버지나 어머니에 대한 애착은 직접적 및 관계적 또래공격성과 정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이처럼, 자기보고와 또래보고의 경우 부모에 대한 애착과 또래공격성 간의 관계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나타난 점은 해석상 쉽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보고자에 따라 다른 연구결

과가 발견될 수도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앞서 살펴본 아동의 인성특성과 또래공격성 간의 관계에서처럼 동일한 행동이라도 보고자에 따라 다른 방향으로 지각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부모에 대한 애착과 또래에 의한 괴롭힘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아버지나 어머니에 대한 애착은 직접적 및 관계적 또래에 의한 괴롭힘과 부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나타났으며, 이러한 관계는 주로 또래에 의한 괴롭힘을 자기보고로 측정한 경우에 발견되었다. 즉, 전반적으로 아버지나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낮을수록 아동은 또래로부터 괴롭힘을 보다 더 당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또래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아동이 부모와 불안정 애착을 형성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들(도현심, 2000; 신재은, 1999; Finnegan et al., 1996; Troy & Sroufe, 1987)과 일치한다. 이처럼, 부모에 대한 애착이 낮은 아동이 또래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것은, 이러한 아동의 경우 비밀관적이고 민감하지 못하며 거부적인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습득한 불안한 취약성을 드러냄으로써 또래가 보기에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Troy & Sroufe, 1987). 그러나, 자기보고의 경우와 달리 또래보고의 경우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직접적 또래에 의한 괴롭힘만이 부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나타났을 뿐 대체로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자기보고의 경우 부모에 대한 애착과 또래에 의한 괴롭힘이 동일한 보고자에 의해 측정되어 그 관련성이 실제보다 과장되어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부부갈등과 또래공격성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부부갈등은 직접적 및 관계적 또래공격성과 정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나타났으

며, 이러한 관계는 자기보고에 의해 측정된 또래공격성의 경우에만 발견되었다. 즉, 아동은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공격적이라고 지각할 때 자신이 또래에게 보다 더 공격적이라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부간 갈등이나 폭력에 노출되었을 때 공격성이 발달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김민정, 2001; 노치영, 1988; Hart et al., 1998). 그러나, 이러한 관계는 또래공격성이 또래보고에 의해 측정된 경우에는 보고되지 않았다. 이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자기보고의 경우 부부갈등과 또래공격성 모두 동일한 보고자에 의해 측정됨으로 인해 양자 간의 관계가 실제보다 과장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음으로 부부갈등과 또래에 의한 괴롭힘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부부갈등은 자기보고와 또래보고에 의한 직접적 및 관계적 또래공격성과 모두 정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이 가족분위기를 화목하다고 지각할수록 또래에 의한 괴롭힘이 낮게 나타난다고 보고한 임경원(1997)의 연구결과와 상반된다. 이는 가족분위기라는 개념상 차이에 근거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임경원(1997)의 연구에서 가족분위기는 부부관계 뿐만 아니라 부모-자녀관계나 형제자매관계를 모두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의미이기에 부부갈등에 초점을 둔 본 연구와는 다른 결과가 나온 것으로 여겨진다. 부부갈등과 또래에 의한 괴롭힘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결과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연구가 요구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아동의 인성특성, 부모에 대한 애착 및 부부갈등과 또래괴롭힘 간의 관계에 더하여, 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이러한 변인들이 또래괴롭힘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모든 변인들 가운데 부부갈등은 또래공격성에 대해, 그리고 아동의 수줍음/정서성 및 사회성/활동성은 또래에 의한 괴롭힘에 대해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는 또래에 의한 괴롭힘의 경우 대체로 보고자에 따라 일치하는 결과를 보인 반면, 또래공격성의 경우 보고자에 따라 매우 다른 결과를 보였다. 이처럼 보고자에 따라 다른 결과가 도출된 것은 매우 흥미로운 점으로서, 보고자에 따라 특히 또래에게 공격적인 아동을 다르게 지각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또래공격성이나 또래에 의한 괴롭힘을 직접적 및 관계적 유형으로 구분한 결과, 직접적 및 관계적 유형이 서로 높은 상관( $r=.60\sim.91$ )을 보였다. 따라서 아동의 인성특성이나 부모에 대한 애착 및 부부갈등과의 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직접적 및 관계적 유형이 서로 동일한 방향성을 나타내면서 결국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이것은 또래공격성이나 또래에 의한 괴롭힘을 직접적 및 관계적 유형으로 구분하기보다는 두 유형을 모두 포함하여 하나의 요인으로 간주하여 분석하는 것도 타당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 외에도 아동의 인성특성, 부모에 대한 애착 및 부부갈등 중 부부갈등은 또래공격성에, 아동의 인성특성은 또래에 의한 괴롭힘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함께 후속 연구를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질문지법으로 연구되었으나, 질문지법에 의한 양적 연구의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해 앞으로는 소수의 또래괴롭힘 가해 및 피해 아동들과 그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보고자에 따라 상당히 다른 결과가 도출된 점에 기초하여 좀 더 객관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또래평가의 경우 아동이 또래를 괴롭히거나 괴롭힘을 당하는 급우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윤리적 문제가 제기되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제 3자에 의한 객관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는 모든 측정도구가 동시에 수집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관관계를 통해 분석되었기에 관련요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또래공격성과 또래에 의한 괴롭힘을 초래하리라 예측되는 아동의 내적 또는 외적 선행요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종단적인 연구설계가 요구된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또래괴롭힘을

주제로 한 대부분의 연구가 또래공격성이나 또래에 의한 괴롭힘 각각에 초점을 맞춘 반면, 본 연구는 또래괴롭힘의 가해아와 피해아 차원인 또래공격성과 또래에 의한 괴롭힘을 동시에 살펴봄으로써 이에 대해 좀 더 포괄적인 이해를 시도한 점에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가 또래괴롭힘의 관련요인으로서 아동의 심리사회적 특성이나 부모의 양육행동 등을 단편적으로 살펴보던 것을 확장하여 아동의 내적 요인인 인성특성을 비롯하여 가족환경 요인 중 이러한 행동양상의 가장 기초가 되리라 가정되는 부모에 대한 애착 및 부부갈등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또래괴롭힘의 관련요인들을 좀 더 다양하게 살펴보았다.

## 참 고 문 헌

- 김민정(2001). 부모의 양육행동, 부부갈등 및 아동의 형제자매관계와 아동의 공격성 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노치영(1988). 가정폭력이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도현심(1998). 인성특성 및 또래에 의한 괴롭힘과 청소년의 외로움 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6(12), 1-9.
- 도현심(2000). 초기 청소년의 또래에 의한 괴롭힘 : 부모에 대한 애착, 또래거부 및 우정관계와의 관계. *아동학회지*, 21(1), 307-322.
- 박미연(2000). 초등학생의 또래괴롭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혜경(2002).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남아의 정서조절 능력과 공격성 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신재은(1999). 청소년의 애착 및 우정관계와 또래괴롭힘 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임경원(1997). 부모의 양육행동 및 가족분위기가 청소년의 또래공격성 및 또래희생성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Armsden, G. C., McCauley, E., Greenberg, M. T., Burke, P., & Mitchell, J.(1991).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 early adolescence depression.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8, 683-697.
- Bandura, A. (1973). *Aggression : A social learning analysis*.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Hall.
- Buss, A. H., & Plomin, R.(1984). *Temperament : Early developing personality traits*. Hillsdale, N. J. : Lawrence Erlbaum.
- Coie, J. D., & Dodge, K. A.(1998). Aggression and antisocial behavior. In N. Eisenberg(Ed.), *Hand-*

- book of child psychology : Vol. 3.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pp. 779- 862). New York : Wiley.
- Crick, N. R., & Bigbee, M. A.(1998). Relational and overt forms of peer victimization : A multiinformant approach.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6*, 337-347.
- Crick, N. R., Casas, J. F., & Ku, Hyon-Chin(1999). Relational and physical forms of peer victimization in preschool. *Developmental Psychology, 35*, 376-385.
- Crick, N. R., & Grotpeter, J. K.(1995). Relational aggression, gender, and social-psychologica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6*, 710-722.
- Crick, N. R., & Werner, N. E.(1998). Response decision processes in relational and overt aggression. *Child Development, 69*, 1630-1639.
- Dodge, K. A.(1991). The structure and function of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In D. J. Pepler & K. H. Rubin (Eds.), *The development and treatment of childhood aggression* (pp. 201-218). Hillsdale, NJ : Erlbaum.
- Emery, R. E., Fincham, F. D., & Joyce, S. A.(1987). Assessment of child and marital problems. In K. D. O'Leary (Ed.), *Assessment of marital discord* (pp. 223-262). Hillsdale, NJ : Erlbaum.
- Emery, R. E., & O'Leary, K. D.(1982). Children's perceptions of marital discord and behavior problems of boys and girl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5*, 165-173.
- Finnegan, R. A., Hodges, E. V. E., & Perry, D. G. (1996). Preoccupied and avoidant coping during middle childhood. *Child Development, 67*, 1318-1328.
- Grotpeter, J. K., & Crick, N. R.(1996). Relational aggression, overt aggression, and friendship. *Child Development, 67*, 2328-2338.
- Hart, C. H., Nelson, D. A., Robinson, C. C., Olsen, S. F., & McNeilly-Choque, M. K.(1998). Overt and relational aggression in Russian nursery-school-age children : Parenting style and marital linkages. *Developmental Psychology, 34*, 687-697.
- Jouriles, E. N., Murphy, C. M., & O'Leary, R. D. (1989). Interspousal aggression, marital discord, and child problem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7*, 453-455.
- Olweus, D.(1980). Familial and temperamental determinants of aggressive behavior in adolescent boys : A causal analysis. *Developmental Psychology, 16*, 644-660.
- Olweus, D.(1991). Bully/victim problems among schoolchildren : Basic facts and effects of a school based intervention program. In D. Pepler and K. Rubin (Eds.), *The Development and Treatment of Childhood Aggression* (pp. 411-455). Hillsdale, N. J. : Lawrence Erlbaum.
- Olweus, D.(1993). *Bullying at school : What we know and what we can do*. Cambridge, MA: Blackwells.
- Pellegrini, A. D., Bartini, M., & Brooks, F.(1999). School bullies, victims and aggressive victims: Factors relating to group affiliation and victimization in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1*, 216-224.
- Schwartz, D., Chang, L., & Farver, J. M.(2001). Correlates of victimization in Chinese children's peer groups. *Developmental Psychology, 37*, 520-532.
- Schwartz, D., Dodge, K. A., & Coie, J. D.(1993). The emergence of chronic peer victimization in boys' play groups. *Child Development, 64*, 1755-1772.
- Straus, M. A.(1979). Measuring intrafamily conflict and violence : The conflict tactics sca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1*, 75-88.
- Troy, M., & Sroufe, L. A.(1987). Victimization among preschoolers : Role of attachment relationship history.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26*, 166-172.